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Mr Wayne E. Johnson

It all started in the medieval city of Koln, Germany. Fabio Novelli, of Nol-Tec Europe, and KS Park, of Lodge Cottrell, began discussing the material handling of fly ash at the 2009 Power-Gen expo. The potential for a mutually beneficial business partnership was quickly realized, and the initial discussions were shared with the managing directors of both organizations.

Within five months of the first conversation at the expo, TY Lee and KS Park came to Nol-Tec Systems in Minnesota, USA, to tour the facility and continue the ongoing discussions of a partnership. Strategically, our companies fit very well together and it was agreed we would go on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an affiliation. The following months of planning and review by both companies came to a successful conclusion when the final partnership agreement was signed on August 31, 2010.

In September, the US stockholders of Nol-Tec Systems traveled to Seoul, Korea, to tour the various plants and project sites of KCGH. We were very impressed with the facilities of KCGH and the hospitality shown to us during our visit. We appreciated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beautiful Korean landscape and the Korean culture.

The employees of Nol-Tec Systems world-wide look forward to the opportunities the partnership with KCGH will bring with its product line and potential for an expanded market share. Our joining KCGH has been truly a strategic decision where “together we are greater than the sum of the parts.” Together we can create a prosperous and successful 2011 and beyond.

NOL-TEC Systems, Inc. CEO Wayne E. Johnson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 APC Division] 2010 APC Division Workshop
- 무주리조트 10월 21일~23일

KC APC Division 임원 Workshop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에 걸쳐 전남에 소재한 무주리조트에서 KC 그린홀딩스와 KC코트렐을 비롯한, 영국,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해외 법인장 등 2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1. APC Division 운영 방안 수립
2. KC 코트렐 3-3 계획 진행 결과 검토 및 4-3 계획의 수립,
3. 2010 사업계획 진행 결과 검토 및 2011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하여 2박 3일 동안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첫날은 각 사업부와 법인별로 2010년 실적을 점검하고 지난 3-3 계획을 뒤돌아 보며 실행적인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차후 4-3에 어떻게 반영할 지의 계획까지 장시간에 걸쳐 토의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첫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4-3 계획을 "KC5029 (Operation Plan 5029)"로, 5000천억 매출, CC20를 통한 20%의 Cost Cut, 그리고 9%의 영업이익을 이루는 작전계명을 가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3가지 계획들을 임시적으로 1. 시장접근 전략, 2. 효과적 협업체계의 구축, 3. 경쟁력강화(기술/인재)로 축약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가능성들을 토론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여러 임직원들이 업무의 노고를 나누고 서로의 고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KC그린홀딩스기획팀 왕정일 (jungil@kcgreenholdings.com)



APC Division Workshop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 Environmental Services Division] 제1회 KC환경서비스 네트워크 체육대회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 22일 전남 구례군 공설운동장에서 KC 환경서비스 네트워크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KCES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KC그린홀딩스의 고재영 사장님, KCES의 이재영 대표이사, KC한미산업의 이강욱 대표이사, KC정림환경의 이석구 상무님 등 임원분들과 환경관계사 3사의 직원들이 모여 수채화 같은 파란 가을하늘 아래에서 축구, 족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의 종목에서 마음껏 실력을 펼쳐보았는데, 결과는 축구와 줄다리기는 KCES, 족구는 KC한미산업, 이어달리기는 KC정림환경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줄다리기에서는 KCES가 너무 강해서 KC한미와의 결승전에서 임원들과 여직원까지 KC한미에 인원을 더해서 겨뤘지만 KCES의 무지막지한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

이어달리기에서는 여직원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마지막 임원들까지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KC정림의 이석구 상무님의 탁월한 달리기 실력으로 역전 우승하셨습니다.

체육대회라고 무조건 승부를 겨루기 보다는 지고 있는 팀에게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관계사들의 저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체육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제1회를 바탕으로 다음 대회에는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참석해주신 임원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C환경서비스 이정식 과장(jslee@kc-enviro.com)



▷ KC환경서비스 사업군 남부3사
(ES Division)
체육대회 참가자 전원

관련 사진은 뒷장에 계속...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KC환경서비스 사업군 체육대회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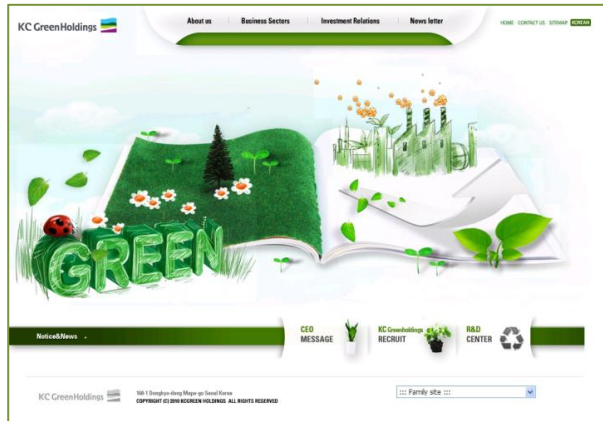
기획특집

[KC그린홀딩스] 영문홈페이지 OPEN

지난 10월 KC그린홀딩스의 한글 홈페이지에 이어 영문 홈페이지도 오픈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 주소 : www.kcgreenholdings.com 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홈페이지 메인화면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착공

부지조성공사 착수... 1, 2단계에 걸쳐 총 600만톤 생산체제 구축

철강·에너지·인프라 등 출자사와 동반진출 기대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 해외 첫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 포스코는 10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칠레곤(Cilegon)시에서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포스코는 이곳에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사인 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투자 400ha(약 120만 평)의 부지를 조성해 2013년까지 1단계로 연산 300만톤 규모의 제철소를 완공하고, 2단계로 추가 투자를 통해 총 6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지난 9월 크라카타우스틸과 70대 30 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회사명을 크라카타우포스코(KRAKATAU POSCO)로 정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인도네시아 마르주키 알리 국회의장과 가마완 파우지 내무부장관, 무스타파 아부 바카르 국영기업부장관, 파즈와르 부장 크라카타우스틸 사장, 김호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우태희 지식경제부 국장, 정준양 회장 등 양국 정부 및 관련인사 350명이 참석했다.

정준양 회장은 이날 "이번 착공식이 동남아시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새로운 성공스토리 창출을 위한 첫 단추로서, 양사의 발전과 성장은 물론 양국 정부의 우호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한다.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상생노력을 통해 신뢰와 존경을 받는 현지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는 투자기업이 인프라와 생산설비 등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그린필드(Green Field) 방식과는 달리 현지 합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철도·항만·전력·용수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브라운필드(Brown Field)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합작사의 건설·조업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조기 정상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철광석·석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해 원료수급이 원활하고, 자국은 물론 인근 인도 및 동남아 지역의 철강 수요산업이 급속 성장하고 있어 시장전망도 밝다. 포스코는 이번 일관제철소 합작사업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내 철강원료도 공동개발할 계획이어서 향후 양사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준양 회장은 유도요노 대통령과 지난 8월 향후 협력사업을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자사도 철강·에너지·정보통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동반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현지 회사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화하는 등 현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 장학사업 및 현지 노동인력 고용 등을 위한 직업훈련소, 한국어 강좌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현지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 ▶ 10월 28일 인도네시아 칠레곤시에서 열린 일관제철소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왼쪽부터 마르주키 알리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이부 라투 아툽 초시아 반탄주 주지사, 김호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정준양 회장, 가마완 파우지 인도네시아 내무부장관, 무스타파 아부 바카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장관, 파즈와르 부장 크라카타우스틸 사장, 최종태 사장, 승은호 코린도 회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우수공급사 동반성장협의회 발대식

PCP 주축 2~4차 협력기업과 상생 도모

포스코 인증 협력기업이 주축이 된 PCP(POSCO Certified Partner)협의회(1차 협력기업)가 2~4차 협력기업과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10월 19일 포항시청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 최영우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나주영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용 부사장, 포스코 1~4차 협력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PCP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는 자금 지원·경영컨설팅·교육지원 등 포스코의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혜택이 포스코와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2~4차 협력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반성장협의회 초대 회장인 대동(고로용 설비 공급사)의 이용동 사장은 "2~4차 협력기업과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 같이 만들어 상생협력 문화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박한용 부사장은 "1~4차 협력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트너십(맞춤형 기술지원),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 성과공유) 제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금융지원펀드 등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은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 운영방안, 1차 협력기업인 동주산업(사장 김중구·압연설비 공급사)의 상생경영 우수사례 발표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포스코 1차 협력기업 대표와 2~4차 협력기업 대표가 함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자율적인 실천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올해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베네핏 셰어링 우수과제 8개를 선정해 7개사(범우, 2개 과제 선정)에 총 30억 원의 현금보상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는 앞으로 2~4차 협력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포스코 구매부서 직원들이 1차 협력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서플라이체인 혁신지원봉사단'에 1차 협력기업의 개선리더들이 참여토록 하고 이들이 2~4차 협력기업을 방문, 컨설팅과 혁신활동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태양광 프로젝트 '첫 삽'

포스코플랜텍, 이탈리아 태양광발전소 착공식

포스코플랜텍(사장 조창환)이 해외 태양광 발전설비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을 떴다.

포스코플랜텍은 9월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갖고, 시칠리아와 아부르조 지역에 소재한 3개 현장에서 총 발전용량 5.5MW급의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한다.

이날 착공식은 시칠리아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려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포스코플랜텍은 총 266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다수 경험을 지닌 직원들을 현지에서 직접 파견하는 등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병균 기술제작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모듈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망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이탈리아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술력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번 이탈리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태국은 물론 필리핀·미국 등 해외 태양광 사업을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플랜텍은 국내 최초로 포항제철소에 1MW급 지붕형 태양광 설비를 공급한 데 이어 지금까지 총 용량 20MW가 넘는 17개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급해왔다.



포스코플랜텍이 9월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 포스코플랜텍은 시칠리아와 아부르조 지역에 소재한 3개 현장에서 총 발전용량 5.5MW급 규모의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한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남동발전, 에콰도르 전력시장 열었다

마나비화력, 기술인력 교류 등 협약
국산 신재생에너지 수출 길 열려

남동발전이 에콰도르와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에콰도르를 비롯해 남중미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은 지난 28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전력에너지부 장관(Mr. Miguel Calahorrano Camino)이 참석한 가운데 에콰도르 전력공사(CELEC E.P.)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남동발전은 MOU를 통해 에콰도르 전력공사와 태양광, 수력, 화력발전사업 및 기술인력 교류 등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협력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풍력발전(90MW) 건설 ▲태양광발전(4.5MW) 건설 ▲디젤 발전소(190MW) 건설 ▲마나비 화력발전소(350~800MW) 건설 ▲수력발전소(200MW×2) 건설 ▲소수력발전소, 노후발전소 성능개선 등이 다.

특히 이번 MOU는 지난 9월 에콰도르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간 전력산업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협력요청에 따른 양국 정부의 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후속 작업으로 이뤄졌다.

이번 MOU 체결행사에는 현재 논의 중인 풍력, 태양광 및 마나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두산중공업, 동국S&C, SK건설,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동참했다. 또 국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업별 현지조사와 더불어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실무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번 MOU로 남동발전은 양사 간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협력으로 국산풍력 발전기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함은 발전 사업 수주를 통한 중남미 전력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신문 2010.10.29 [박기진 기자]



▲ Medardo Cadena Mosquera 에콰도르 전력공사 사장, Miguel Calhorrano Camino 에콰도르 전력에너지부 장관, 장근호 주 에콰도르 대사,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 유재호 지경부 사무관, 권순영 남동발전 신성장동력실장, 김성원 두산중공업 상무, 임한성 SK 건설 상무, 이법주 동국 S&C 이사 (왼쪽부터)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환율시장

11월 원달러 환율 1,100 원~1,155 원 전망

11월 달러/원 환율은 미국 중간선거와 FOMC 회의, G20 정상회담 등 빅이벤트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 흐름이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기대가 상당부분 선반영되었고, 주요 통화들의 레벨 부담, 우리 정부의 추가 '자본유출입 변동 방안' 발표 가능성 등으로 9~10월의 일방적 원화 강세 기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중간선거는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나 민주당의 약달러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FOMC는 베이비스텝 식의 양적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G20 정상회의는 경장수지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이라는 여건에 변화가 없어 달러 약세 속도, 위안화 절상 허용 강도 등에 따른 환율 갈등이 반복될 소지는 여전하다고 본다.

중국은 인플레이와 자산 가격 버블 억제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금리인상은 위안화 절상의 허용보다는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환율보다 금리정책으로의 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달러/위안 환율은 주요 통화의 미달러에 대한 절상률과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는 수준에서 절상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미달러는 양적 완화 기대에 따른 하락 압력은 이어지겠으나 양적완화 재료 선반영 인식, 기술적 부담, 일본, 영국 등의 양적완화 동참 등으로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월 후반에는 경제지표로 관심이 이동하며 이에 따른 등락이 예상된다. 유로/달러는 1.40 안착 시도가 예상되나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유로존 기업들의 부담 등으로 상승 폭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은 달러 약세와 투기세력들의 역사적 저점 테스트 의지로 하락 압력 나타나겠으나,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고,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움직임으로 주로 80 엔대 초반 중심 등락이 예상된다.

9월초부터 시작된 강력한 원화 절상 흐름이 10월 중순 이후 1110원의 지지 속에 주춤한 모습이다. 중국의 금리인상과 가이더너 재무장관의 '강달러 지지' 발언, 그리고 자본규제 도입 부담 등이 환율의 추가 하락에 제동을 걸고 있다.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 기대 심리 제고를 겨냥한 미국의 양적 완화 시즌 2'는 강력한 달러 약세 재료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G20 회담전 美재무장관의 '강달러 지지' 발언은 미국의 달러 약세 속도에 대한 적잖은 부담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9,10월 금융시장의 흐름은 양적 완화의 재료를 단기간에 과도하게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양적완화에 기댄 달러 약세 드라이브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9월 중순 이후 주가 변동성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통화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서도 달러 약세의 속도에 대한 부담을 엿볼 수 있다.

9월 들어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스왑포인트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한-미 금리차 축소, 선물환 매도 외에도 규제리스크에 따른 차익거래 포지션 축소 등이 원인이다. 지난 5월 스왑포인트는 현물환율에 선행해 하락함으로써 환율 상승을 예고했는데, 최근에는 스왑포인트 하락에도 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이어서 환율 반등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높아진 달러/원의 변동성 지표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원화 매수포지션을 구축한 외국인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 G20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직접 외환시장 개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국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G20 회담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자본규제 움직임에 대해 선진국들이 용인하는 입장이어서 우리 당국도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은행의 1년미만 단기 외채에 세금 또는 부담금 부과, NDF 규제, 선물환 규제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때 달러/원 환율은 1차 1110원, 2차 1100원을 지지선으로 한 완만한 하락 기조 속에 9,10월보다는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금융시장 흐름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되는 장세를 전망한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여기서 잠깐☞

[10월 환율정보의 신뢰성 파악]

10월 원달러 환율은 약 1110~1160원을 예상하였는데, 상단선이 과장된 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있었다.

10월 환율은 9월의 가파른 하락에 따른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양적완화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 지속과 외국인의 원화 자산 매수로 하락하며 1100 원에 바짝 다가섰다. 월 후반 레벨에 부담을 느끼고, 당국개입을 경계하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추가 하락에 주춤하며 1100 원대 초반 중심 등락하며 마감되었다.

출처: 삼성선물 2010.10.29 삼성선물 11월 금리, 환율전망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원자재 시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열연] 내년 열연 유통, 경쟁 더 치열해진다!

- 내년산 국내 공급 확대로 가격 경쟁 더 치열해 질 듯

내년 열연 유통시장의 공급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과 동부제철의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들 업체들이 어느정도 수입 시장을 잠식하는가에 따라 경쟁의 강도는 달라질 전망이다.

- 현대제철 동부제철 중국산 얼마나 대체하는가가 관건

현대제철과 동부제철산 열연은 중국산 등 수입산 대체와 일부 포스코산 대체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산 열연코일 수입 대체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중국산 열연강판 중 상당량이 가격적인 이점에서 수입된다는 점에서 국내 생산업체들의 수입 대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보론강 열연강판의 본격적인 수입 가능성은 국내 생산업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열연 시장은 올해보다 가격 경쟁이 더 격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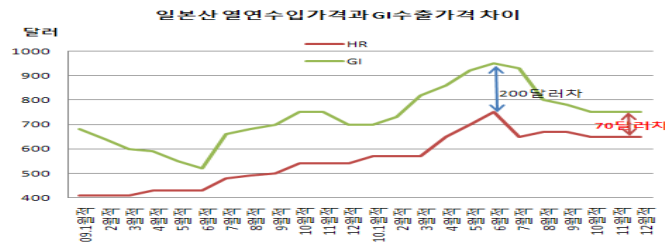
(스틸데일리 11-02 기사 요약)

[냉연] 냉연업계, "수출비중 줄이자" 후유증 극심

- 4분기 낮은 수출가격으로 역마진 발생..수출비중 축소 본격화
- 내수비중 확대로 가격경쟁 극심해져..내수마진 축소로 4분기 실적 악화 불가피

냉연사들이 수출비중을 줄이고 내수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이 극심해지며 내수마진까지 박해지고 있다.

■ "수출할수록 손해" 4분기 수출비중 축소 본격화



정상적으로 마진을 보려면 공정상 100달러씩 차이가 나야하지만 현재의 낮은 수출가격으로 인해 수출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연사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4분기 수출비중을 줄이고 내수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내수마진까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시장에서 판매물량을 늘리려는 냉연사들의 판단이 겹치면서 현재 제값(공장도價) 받는 냉연도금제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현재 적용 중인 할인이 냉연사들의 시장경쟁으로 점차 확대되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스틸데일리 11-02기사 요약)

[형강] 현대제철 H형강, "가격 현실화 유도"

- "시장가격 90만원 이상으로 형성에 총력"

현대제철이 H형강 시중 가격 하락에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0월 중순 이후 시중 가격 하락이 목격되고 있다"며 "시중 가격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 가격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내부 방침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 가격은 이달 초 생산업체 가격 인상 적용으로 90만원 이상까지 올랐지만 수요 부진과 경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맥없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3주간 하락폭이 약 3만원에 달하는 등 약세 분위기가 뚜렷했다. 유통업계 등 고객들의 가격 인하 압력이 예상되는 등 생산업체 출하가격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제철은 시장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까지 올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 생산업체 관계자는 "시장 가격이 90만원 이상에서 형성돼야 생산업체 유통 모두가 어느정도 수익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90만원 이상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조절 및 가동 중단도 계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일본제철 JFE스틸 등 일본 고로사들은 지난 3개월간 시장 재고 조정을 위해 유통 출하를 중단을 통해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스틸데일리 10-29기사 요약)

[STS] 포스코 11월 300계 STS가격 10만원 인상

- 원료 및 국내외 시장여건을 고려, 11월 300계 출하가격을 10만원 인상

포스코는 11월 스테인리스 300계 출하가격을 전월대비 1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00계 스테인리스 열연제품 출하가격은 톤당 380만원(밀에 지 대단중 현금 상차(포항) 기준), 냉연제품은 407만원으로 조정된다.

포스코는 그동안 원료가격 변동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원가압박이 상당히 높았으나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격인상을 최소화하였고 금번에도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소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월 들어 스테인리스 생산업체들은 니켈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압박으로 출하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중국의 타이위안 강철은 한국향 수출가격을 톤당 200달러 인상했고, 대만 밀들도 내수가격을 톤당 160달러를 인상한 바 있다.

최근 니켈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조치 기대로 달러약세가 지속되어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강세가 예상되고 니켈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스테인리스 시장의 펀더멘탈은 아직까지 견조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락한 니켈가격에 따라 국내 출하가격을 운영하는 것 보다 시장을 견인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포스코는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11월 400계 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스틸데일리 기사 프린트하기 페이지 1 / 2

[http://\(스틸데일리 10-28기사 요약\)](http://(스틸데일리 10-28기사 요약))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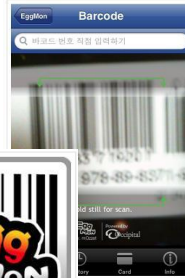
기획특집

"추천합니다 이 어플 한번 써보세요~"

에그몬(Egg MON)

경로 안드로이드마켓 ⇨ Top Free ⇨ 쇼핑

핸드폰 카메라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의 가격을 바로 확인 가능하며, 웹상에서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도 가능합니다. 물론 최저가격과 판매 사이트 정보도 나와 있으며, 일반 바코드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QR코드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 카드 및 포인트 카드의 카드번호나 바코드를 입력하면, 많은 수의 카드를 휴대할 필요 없이 해당 앱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민정
KC그린홀딩스 재경팀

나만의 TIP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마트에서 상품의 가격을 잘 모를때, 판매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고로움 없이도 가격을 알 수 있고, 바로 바로 가격 비교까지 가능하니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북앤딕오바마

경로 iTunes ⇨ 유료Apps ⇨ Education

미국 제44대 대통령인 Barack H. Obama의 명연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휘 습득 및 청취능력 향상이 가능하며 최근 시사 정보까지 접할 수 있는 1석 2조의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WiFi지역에서는 무료 연설 동영상도 시청 가능합니다.

나만의 TIP 북앤딕에서는 오바마뿐만 아니라 스티브잡스, 오프라윈프리, 링컨 등 범시대적 대표 명사들의 명연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mart way to learn English & World

윤제연
KC그린홀딩스 기획팀

KC에도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 상무님 전무님 팀장님 대리님 할 것 없이 모두들 폰을 바꾸고 계신데요~정작 스마트폰의 대표 기능인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쓰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앱맹"을 위해 KC의 "앱질마니아"들의 지침서를 소개해드립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기획특집

고속도로 교통정보

경로

T store ⇨ 검색창에 “고속도로교통정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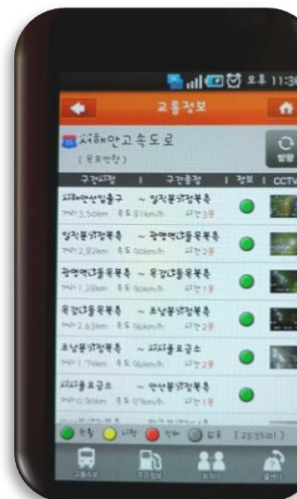
1.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도록 노선별 소통정보, 해당구간의 CCTV 정보제공
2. 고속도로 이용시 해당 고속도로의 교통속보 제공을 통해 상세한 도로상황 확인
3. 고속도로 이용에 필요한 주유소정보와 가격정보를 확인
4.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
5. 문의사항, 불편사항 상담 콜센터 연결제공

고속도로 교통정보

이정미

KC코트렐 해외사업부 기술팀

나만의 TIP. 주말을 이용한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면서, 주말이면 어김없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전 실시간으로 노선별 소통정보와 CCTV를 확인하며 조금이나마 교통체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현 주행노선상에 있는 주유소들의 가격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되고있어 고유가 시대에 단 10원이라도 절약할수 있게 해준답니다. 참 기특한 아이죠?^^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기획특집



지하철 내비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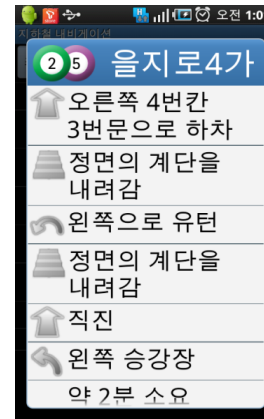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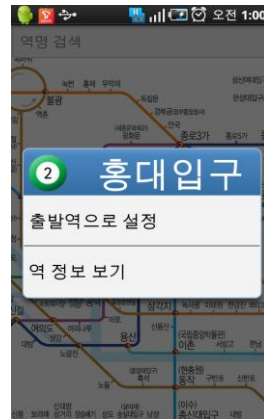
경로 : T store > 생활/위치 > 교통/여행

검색 : T store - 지하철내비게이션

지하철 교통정보

이원희

KC코트렐 제철사업부 기술팀



지하철 노선도	경로찾기	경로 검색 결과	환승 정보	지하철 시간표
갤럭시S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 노선도를 보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하철 노선도에서 터치로 선택하여 출발/도착지 설정 및 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검색시 출발지/환승역/도착지 및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소요시간 및 지하철 접근 시각을 알려줍니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역 이용시 환승위치가 달라 고생하게 되는 데 알아타는 위치를 제공하여 편리합니다.	지하철 역마다 접근하는 지하철의 시간표를 제공합니다.

나만의 TIP 다른 지하철 노선도보다 무겁지 않고 가독성도 뛰어나며, 지하철노선도, 경로검색, 환승 정보, 지하철시간표 등 여러 자료를 한 프로그램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노선도나, 시간표 경로검색, 주변 정보를 보기 위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쓰시는 유저라면 한번쯤 사용을 권해 드립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기획특집

Contact Widget

경로 : 네이버카페

검색 : 마켓 - Scrollable ContactWidget Beta



홈 화면 위젯

그룹으로 저장된 연락처를 연결하여 바탕화면에 위젯으로 설정 가능하며, 연락처가 많을 시 스크롤 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연결 및 SNS

전화번호 별로 생성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화, 문자, 이 메일 등 바로가기 연결 아이콘이 나타나며, 트위터, Facebook 등 최근 등록된 SNS 글이 함께 나타납니다.

연락처 관리

이원희

KC코트렐 제철사업부 기술팀

▷ Contact Widget은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를 그룹별로 관리하여 홈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입니다.

▷ 다른 연락처 어플보다 가볍고 설정 및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 주소록에 등록 된 연락처 별 사진이 연동되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전화, e-mail 등 기본 프로그램 사용 시 전화번호 및 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지만, 이 어플은 바로 가기가 연동되어 있어 해당 아이콘 터치 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연락처 및 e-mail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 또한 연락처 터치 시 Facebook, 트위터 등 지인의 최근 등록된 글을 확인할 수 있어 SNS를 하는 유저라면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기획특집

2Do

경로 iTunes Store ⇨ 생산성 ⇨ Guided Ways Technologies Ltd

프로젝트별로 하위 디렉토리를 설정해 각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임.
예를 들어 콘퍼런스 개최를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를 설정하고 마감일이나 알람을 각각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트위터나 이메일로도 자신의 일정을 전송할 수 있음.



나만의 TIP Project 진행 중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각각 중요도를 부여하여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이 밀리지 않게 DEADLINE을 정해두면 알림 기능이 있어 일이 밀리는 경우를 사전예방 수 있음.

나만의 일정관리 프로그램

하정표

KC코트렐 발전민수사업부 기술팀

그 밖에 편집자 추천 앱!

췌! 진동 모드 전환 스마트 매너

유료 경로 생활/위치 ⇨ 유틸리티

출근 뒤 스마트폰을 매너 모드로 설정하지 않아서 실례를 범할 때가 있다. 반



복되는 시간을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그 시간에 매너 모드가 되도록 설정해주는 센스 만점 애플리케이션.

최상의 모바일 환경 구현

Wi-Fi 연결 유지

유료 경로 생활/위치 ⇨ 유틸리티

대기 상태에서도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활성화 상태로 유지 해주며 네트워크 상



태를 유지만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데이터 소모 및 메모리와 CPU 사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현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회원간 무료 통화 및 메시지
수다폰 <SUDA Phone>

무료 경로 iTunes Store -> 수다폰 검색

수다폰 어플리케이션은 3G망이나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지역에서는 무료로 통화가 가능하지만 3G로 이용할 때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수다폰은 스카이프와 달리 전화를 받을 때 불특정 번호가 뜨지 않고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오빠 밋지" 어플은 다운 폭주로 일시 중지 되었다고 하네요 ~다행이신가요 ^^